

# 2인 대표이사 체제 유지... '성과·기술' 중심 조직개편 단행

〈한종희·경계현〉

## SAMSUNG

삼성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해 기술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영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성과를 거둔 기술자들에게 승진 조치 혹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어줬다.

우선 주요 미래 먹거리인 DX부문 네트워크사업부를 이끌어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전경훈 사장은 삼성리서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DX부문 CTO까지 겸임하게 됐다. 전 사장은 포항공대 교수 출신으로 2012년에 입사해 차세대통신연구팀장과 네트워크개발팀장 등을 지낸 기술자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인 네트워크 사업 성장을 견인해왔다. 앞으로 기술 리더십과 전략적 안목을 바탕으로 DX사업 선행 연구를 총괄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경영진 대부분 그대로 유지  
7명 사장 승진, 전원 1960년대생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새 임무 부여**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2020년 삼성리서치장으로 영입된 승현준 사장은 삼성리서치 글로벌 R&D 협력담당을 맡게 됐다. 우수한 연구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주요대학과 선진 연구소와 R&D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인 남석우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 제조 담당으로 임명됐다. 남 신임 사장은 반도체 공정 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반도체 연구소에서 메모리 전 제품 공정 개발을 주도해왔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을 함께 수행하며 '초격차'를 위한 공정 경쟁력을 높여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과 제조뿐 아니라



남석우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제조담당 사장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사장



백수현  
DX부문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장



박승희  
CR담당 사장



양걸  
중국전략협력실장 사장

인프라와 환경안전 분야 역량을 두루 갖춰 초격차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연구소장인 송재혁 부사장도 사장 승진과 함께 CTO를 겸임하며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송 신임 사장은 그동안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공정 개발부터 양산까지 반도체 전 과정에서 기술리더십을 발휘하며 메모리 1위 달성에 기여한 기술자로 평가받는다. 앞으로는 DS부문 기술 책임자인 CTO도 함께 맡아 반도체 전제품 선단 공정 개발을 주도하며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받았다.

전 사장이 자리를 비운 네트워크사업부는 전략마케팅팀장이었던 비즈니스 전문가 김우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사업부장으로 일하게 된다. 김 신임 사장은 그동안 네트워크사업부에서 상품전략그룹장과 차세대 전략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기술뿐 아니라 영업과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번 승진으로 차세대 통신 중심 네트워크비즈니스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립 이후 첫 여성 사장 탄생  
중국 조직 쇄신... 불확실성 대응  
"경영 안정, 변화·혁신 함께 도모"**

특히 삼성전자는 회사 창립 이후 첫 여성 사장을 선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이영희 신임 사장이 주인공이다. 이 사장은 2007년 입사해 갤럭시 마케팅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장이 센터장을 맡은 동안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 삼성전자가 첫 글로벌 톱5에 오르는 성

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스마트싱스 일상도감'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도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주도함과 동시에, 첫 여성 사장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중국 조직도 쇄신했다. 중국전략협력실

부실장을 맡고 있던 양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조치하고 중국전략협력실장으로 임명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여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준비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

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 승진자는 모두 1960년대생으로 구성됐다. 양걸 사장이 1962년생으로 최고령, 김우준 사장이 1968년생으로 가장 젊다.

종전까지 CR부문을 맡고 있던 이인용 사장과 DS부문 CTO를 맡고 있던 정은승 사장, 중국전략협력실장이었던 황득규 사장의 거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인용 사장과 황득규 사장은 1950년대생, 정은승 사장은 1960년대생으로 '60세돌'을 이미 넘어선 고령층에 속한다. 때문에 퇴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울러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이던 이영희 사장이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변경된 배경도 추후 조직 개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 커뮤니케이션 조직 강화... 백수현 승진

» 1면 '삼성전자, 첫 여성...'서 계속

우려가 커지는 중국 조직도 쇄신했다. 중국전략협력실 부실장이었던 양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실장 자리도 함께 맡겼다.

커뮤니케이션 조직에도 힘을 실어줬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백수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이었

던 박승희 부사장이 승진과 함께 삼성전자로 이동해 CR담당을 맡게 됐다.

아울러 네트워크사업부를 이끌었던 전경훈 사장은 삼성리서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했고, 승현준 사장은 삼성리서치 내 글로벌 R&D 협력 담당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재용 기자